**수술 / 시술 항혈전제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집필위원회 회의 (1)**

2017년 3월 30일 18:30

서울성모병원 601호 회의실

참석자: 구자성, 조용진, 남효석, 박광열, 이기정

1. 개발 방법: 수용 개작

- Adaptation, Hybrid, De novo 방법 중 adaptation 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함.

- Guideline 을 검색하는 엔진을 이용하여, candidate guideline 들을 찾은 후, 집필언어, 발행시기 등을 필터로 하여 적절한 reference guideline 을 정하고, AGREE II 등 guideline 을 평가하는 tool 을 이용하여 적절성을 평가하여, 최종적으로 수용 개작할 guideline 을 정함.

2. 지침 제목 (영문, 국문)

- 국문: 뇌경색 환자에서, 수술 및 시술 전후 항혈전제 사용에 관한 지침

- 영문: Guideline for the perioperative or periprocedural management of antithrombotics in ischemic stroke patients

3. 지침 적용(사용) 대상자

- 뇌졸중을 진료하는 의사로 한정

- 향후 (다음 집필 시), 유관 학회에서 집필 단계부터 참여하는 형태의 “Multi-disciplinary” approach 가 필요할 것이나, 이번 집필에서는 우선 대상을 한정하여 시작

4. 핵심 질문 (세부 주제)

- 주제에 따라 방법론을 달리하지 않고, 가급적 여러 가지 key question 을 share 하는 guideline 들을 찾아서 수용 개작하는 방향

- 주제가 매우 광범위함. 크게, “개별 환자의 stroke 재발 risk” 와 “수술 종류에 따른 bleeding risk” 두 가지 issue 로 나눌 수 있는데, 둘 다 stratification 이 어려움. Etiology, 수술 부위에 따라 너무나 광범위함.

- “누구라도 항혈전제를 끊지 않을 시술”이나, “누구라도 끊겠다고 할만한 큰 수술”은 제외하고, “minor 한 수술인데 다빈도여서 임상적 요구가 큰 수술”로 주제를 한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으나, 이번이 해당 주제의 첫 번째 guideline 집필임을 감안하여, 가급적 general 한 방향으로 집필하기로 함.

- 예상 key questions

1) 수술/시술과 뇌졸중 위험 및 빈도

2) 수술/시술 관련 뇌졸중의 위험인자

3) 뇌졸중 후 적절한 수술 시점

4) 항혈전제 중단과 뇌졸중 위험

5) 항혈전제 지속과 출혈 위험

6) 항혈전제 중단 시 적절한 중단 / 재시작 시점

7) 항혈전제 중단 시 가교치료(bridging therapy)

고려 사항: 수술 / 시술의 종류 또는 범위 (혈관, 심장, non-cardiac, general)

일차예방 / 이차예방

5. 문헌 조사의 방법과 범위: Guideline

* 정식으로 key question 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단계 이전에, key question 을 찾기 위한 탐색 단계의 검색을 먼저 하기로 함.
* AAN (구자성), AHA/ASA/ACC (박광열), 영국(NICE)/Canada (조용진), ESOC/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(남효석) 으로 나누어 최신 guideline 을 먼저 review 하여, 내용을 공유함. 다음 회의 때 각자 review 한 내용을 발표하면서, 이 때 key question 을 suggestion 하는 것으로 함. 이를 토대로, 정식 guideline 검색에 이용할 key question 을 구체화 함.
* 기존의 Guideline 에서 method 부분을 연구하여, 검색에 유용한 term 등을 파악함.
* NECA 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함.

6. 기타

- Consensus, Delphi: 수용 개작을 하더라도, 나라와 시기에 따라 실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expert opinion 같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, 여전히 유효한 방법론.

- 유관학회 자문: 유관학회 범위 / 자문방법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함

-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음

- 출간 방법: 국내 학술지 (대한 신경과학회지 등) 에 국문으로 출간하는 방향으로.

2017.03.30 이 기 정 작성